



임실군, 멘토·멘티 결연·문화 체험 진행

임실군이 최근 관내에 거주하는 비다문화가정 10명과 다문화가정 10명이 함께 고창 상하농원에서 멘토·멘티 결연 및 문화 체험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멘토·멘티가 함께하는 문화 체험 사업은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 결혼이주여성 멘티와 지역사회 인적 자원인 멘토를 연결하여 안정적인 적응을 돕고, 쉽고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체험활동으로 진행했다. 이번 일랑말랑-day에 참여한 한 결혼이주여성은 "평소와 보던 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즐거웠다"고 전했다. 심민 군수는 "멘토와 멘티가 문화 체험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친밀감이 증진된 것 같다"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진안군,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 시상식서 보건복지부문 우수기관상

진안군이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문 우수기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16일 고창 킨텍스 제2전시장 7홀 주무대에서 열린 이날 시상식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진안군치매안심센터는 인공지능(AI)기반 치매 어르신 돌봄 인형 제작, 제공으로 인지강화 비대면 통합돌봄 서비스를 구축해 코로나19로 인한 치매 어르신의 돌봄 서비스 공백과 사회적 고립 최소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진안군은 전라북도 최초로 2022년부터 진안군 캐릭터인 '빠방'에 인공지능(AI)을 장착한 인형을 제작해 치매 어르신 100명에게 제공했으며, 2023년 우수시책으로 선정돼 전라북도 13개 시·군으로 인공지능 돌봄 인형 지원사업이 확대되기도 했다.

인공지능(AI) 빠방 돌봄인형은 말동무, 노래, 이야기, 퀴즈, 복약 지도 등 치매어르신의 정서적 교감활동을 도와 무력감 및 우울감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훌륭한 어르신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송미경 진안군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어도 살기에 불편하지 않은 치매 친화 도시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치매 관련 문의는 치매콜센터(1899-9988), 진안군치매안심센터(063-430-8588)에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정읍농기센터, 신규 강소농 교육 수료식 개최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5일 '신규 강소농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강소농은 경지면적이 적으면서 가족 중심적인 중소 농가가 안정적 소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는 농업인을 말한다.

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12회 36시간, 기본 2회, 심화 2회, 후속 9회를 진행해 수강생 22명 중 18명이 수료했다.

교육내용은 농가경영개선, 농업세무지식, 농가스토리텔링 이해 수업과 농가 경영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스마트 농업 체험을 함께 참여한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한 수료생은 "농업경영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강소농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도 나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리산처갓집, 남원 인월면에 김장김치 나눔

남원시 인월면은 지난 15일 지리산처갓집(대표 박병현)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김장김치 20박스(100만원 상당)를 기탁해 왔다고 전했다.

박병현 대표는 "추위진 날씨에 외롭고 쓸쓸한 어르신들에게 마음 따뜻하고 정성 가득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 매년 김장김치 봉사를 펼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치를 받은 어르신은 "체속값이 많이 올라 김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김치를 넉넉하게 받아 든든하게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고 감사해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소방서, 가을철 산불 예방 홍보·대응대책 추진

무주소방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예방 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예방 홍보와 대응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10월 기준) 531건이 발생하였다. 주요원인은 입산자 실화28%, 소각행위 23%, 담뱃불 실화 10% 등 주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예방기간동안 실시되는 주요 내용은 △산불발생 우려지역 순찰 강화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 안전수칙 교육 △산림인접 전통사찰 등 소방훈련 등이다.

무주소방서 관계자는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아름답고 소중한



숲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기위해 많은 분들이 산불 예방에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사랑회, 사랑의 연탄 나눔 이웃사랑 실천

군산시는 16일 군사랑회(회장 김성수)가 동절기 난방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연탄지원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오는 12월 1일 군사랑회 회원들과 함께 연탄 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을 방문해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수 회장은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계획했다"며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남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험생 대상 봉사 펼쳐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일신)가 16일 아침, 수능 시험장인 남원고, 남원여고, 성원고, 서진여고 정문에서 1388청소년지원단과 수험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아웃리치)을 실시했다.

이날 펼친 봉사활동은 1388청소년지원단,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분과 단원들이,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학책, 에너지바, 초콜릿, 위기청소년 상담 홍보자료 등이 담긴 선물 꾸러미를 나눠주고 필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 청소년들의 건강할 발달과 문제 예방을 위한 각종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서, 수능일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 펼쳐

남원경찰서(서장 김철수)는 16일 학교전담경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등과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학교 앞에서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홍보물(학책, 에너지바 등) 전달 및 수능시험 후 해방된 청소년의 일탈 및 비행 활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학생·학부모 대상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금지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수능 후 청소년 비행 대응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학교 교사·하이라인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통한 지역사회 관심을 유도했다.

김철수 서장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수능시험 종료 후 해방감과 여유시간 증가에 따른 청소년 비행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119 안심콜 서비스 홍보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가 응급환자의 정보를 확인해 맞춤형 구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119안심콜 서비스' 이용에 대해 홍보했다.

119안심콜은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사전 등록한 정보를 통해 119 신고 접수 시 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바로 파악해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119안심콜 서비스 홈페이지(ul119.nfa.go.kr)에 접속한 뒤 개인정보(전화번호와 주소)와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되고 가까운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대리료 등록할 수도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Table with columns for various regional offices: 전주지사, 임실지사, 김제지사, 남원지사, 순창지사, 부안지사, 고창지사, 중양지사, 인후지사, 송천지사, 팔복지사, 군산지사, 익산지사, 신진지사, 진안지사, 정읍지사, 장수지사, 무주지사.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책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민다.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